

대규모 공개 온라인수업 MOOC 기반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활성화 방안 고찰 및 제언*

한민정**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과정

이우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2010년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창업과 기업가정신 관련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또한, 부처들이 모여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그 확산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앙트러프러너십 전문교수자의 부족, 창업인프라 편중현상으로 인한 교육혜택의 지역편차 심화, 천편일률적이고 파편적인 교육커리큘럼, 그리고 빠른 변화의 스타트업 환경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 내부체계 등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온라인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질적향상과 양적확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대규모공개수업 MOOC(이하 '무크')가 확산되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또한 비즈니스 범주에서 주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효과성에도 좋은 결과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규모 개방 온라인교육 수업과정인 무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구조적 배경의 이해를 통해, 무크 현상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에의 적용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목적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최신문헌 검토 및 참여관찰, 심층면담, 이해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을 구성하였다.

주요어: MOOC, Entrepreneurship,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 창업교육문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프로그램, 교육 혁명,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미래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영역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창업교육이슈페이퍼, 2016).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육의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질적·양적 향상을 추구하

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앙트러프러너십 연구들이 양적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효과성과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미래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무크 현상을 총체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질적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논문의 목적은 대규모 개방 온라인교육 수업과정인 무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구조적 배경의 이해를 통해, 무크 현상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앙트러프러너십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교집합을 고찰 및 제언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김도현 외(2017)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entrepreneurship'이 '기업가정신'으로 번역되어 만들어지는 혼란과,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려는 본질적인 의미에 교란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주저자 hubyou7@gmail.com

***교신저자 drlee@kookmin.ac.kr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 선행연구 및 자료를 살펴보고,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을 경험한 샘플집단을 관찰 및 심층 면담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 1) 기존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2) 무크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무크 기반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 3) 향후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효율적·긍정적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무크와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이 접목할 수 있는 교집합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2.1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이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은 그동안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이명숙, 원상봉, 2013) 개념 정의가 어려우나,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앙트러프러너를 위한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을 정의함을 따른다(김주미 외 2인, 2007; 설병문외 3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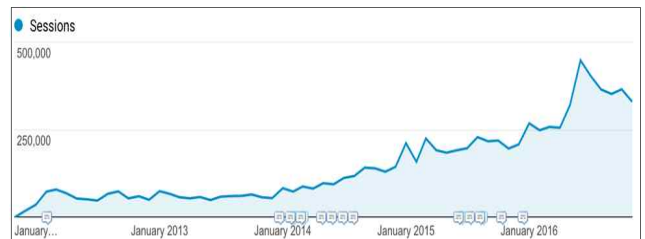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현황은 미국 대학의 경우 2001년 까지 30여 년간 1년에 15개의 대학씩 증가하며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국내의 경우 역시 2013년을 기준으로 지난 21년간 57배의 강좌 개설대학의 증가를 보이며 급속도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이우진, 황보운, 2015).

하지만 국내에는 앙트러프러너십 전문교수자의 부족, 교육의 질적 평가 및 검증이 불명확, 창업인프라 편중현상으로 교육혜택의 지역편차, 산학협력 교육 시스템 기반이 약함, 교육 커리큘럼의 천편일률,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과 속도를 쫓아갈 수 없는 대학 내부 체계, 정부지원 사업을 받기위한 전시행정예 불과한 형식적인 교육 등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칭 문제

의 주요원인은 교육대상별 교육전략의 부재, 교육전문가 양성 노력의 미흡, 제한적 교육 내용 및 교수법에 의존, 교육환경의 제약 등 복합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하규수&여경은, 2016).

2.2 무크의 개념과 주요 특징

무크관련 최신자료를 제공하는 Class central¹⁾에 따르면, 2017년 10월에만 2600개의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었다고 한다. Class central의 2016년 무크 리포트를 보면, 한해 300만 명의 사람들이 Class central를 통해 무크 정보를 접했고, 매년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통계치를 보여주었다.



<무크 관련 정보를 찾는 홈페이지 방문객 수 증가>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코세라의 경우, 1700개의 코스와 2300만 명의 이용자가 활동하며, 2016년에만 600만 명의 새로운 이용자가 코세라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 코세라의 경우 거의 40%의 강좌가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 그리고 컴퓨터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세라는 주요 분야의 수업들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 기준 29개의 나라에서 147곳의 파트너사가 있으며, IBM과 PwC와 같은 회사도 포함된다(Class central, 2016).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M(massive)는 '대규모'를 뜻하는 개념으로 초대형 규모의 학습자들이 동시에 단일 강의에 등록하여 수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odriguez, 2012). 최대 22만 명 이상 등록, 평균 등록자 43,000명(Jordan, 2014; Jonan Donaldson et al, 2014에서 재인용)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O(Open)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전문지식, 생각,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공유가 이루어지고, O(Online)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C(Course)는 시작과 종료시점이 있고, 교수자가 설정한 학습목표, 학습자원, 학습활동,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수업이라는 의미이다(Hollands & Tirthali, 2014).

1) https://www.class-central.com/report/mooc-course-report-october-2017/?utm_source=newsletter_october_2017&utm_medium=email&utm_campaign=cc_newsletter

무크의 주요 차별화된 특징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강의를 무료 청강(Sergio Martinez, 2014), 무제한 수강생 규모(Pappano, 2012; Jonan Donaldson et al, 2014에서 재인용), 커뮤니티 형성과 상호소통(Young & Bruce, 2011) Alannah Klapp(2013)[MOOCs open doors for Diverse student body: Jonan Donaldson et al, 2014에서 재인용], 최신 기술 기반의 강의 제공방식(Wikipedia MOOC, 2017), 평가방식의 독특성(Luo, Robinson & Park, 2014; Jonan Donaldson et al, 2014에서 재인용), 직무 능력으로 인정되는 수료증 발급(Jonathan Haber, 2016) 등이 있다. 그러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몇몇 전문가들은 온라인 학습이 면대면 교육 환경에서 학습한 학습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다고 한다(means et al. 2012: Jonan Donaldson et al, 2014에서 재인용). 다른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온라인 학습의 속성과 나태해지려는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Elvers, Polzella, & Graetz, 2003; Jonan Donaldson et al, 2014에서 재인용).

무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반론이 많은 원인은 무크의 역사가 짧고,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량적 방법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3. 무크와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접목

최근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 무크를 플랫폼으로 교육했을 때, 기업가정신의 확장성과 효율성, 효과성에 우수했다는 연구결과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Al-Atabi의 논문에 따르면, Taylor 대학은 말레이시아 교육기관 최초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무크 플랫폼)에 제공한 학교이다. 2012년 학기와 2013년 학기에 두 번에 걸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Outcome-based education을 기반으로 고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 80명의 학생이 설문지에 응했다. 결과는 총 25% 학생이 수업을 끝까지 완수했고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90% 학생이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수업의 효과는 1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와 성취도, 앙트러프러너십 마인드 변화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로써 무크를 통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사례로 입증되었다(Mushtak Al-Atabi, 2014)

하지만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형태라면 교육의 효과성이 좋을 수 없다. 또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특성상 실행력이 중요하다(Donald F. Kuratko, 2016).

온라인교육플랫폼의 특성상 수동적인 학습형태를 취하기 쉽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형태인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러닝, 소셜러닝 형태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습방식이 효과성이 좋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³⁾

III. 연구 방법

3.1 질적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란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나 표준화된 연구(또는 그 결과)의 대칭적 개념이다(조영달, 2015).

질적 연구 방법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경험 자료로서 숫자 대신에 텍스트를 사용하며, 구성주의적인 관점(constructivism)이나 탈현대적 경향으로서의 주관주의의 입장, 혹은 비판적인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연구 참여자(연구대상)의 관점과 그들의 일상적인 실천 행동,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그들의 생활세계적인 지식에 관심을 둔다. 질적 연구는 그 연구 기법이 연구 주제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 과정과 각 부분의 관계 역시 해당 학문공동체의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질적 연구가 삶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여러 방법(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관찰노트, 면담, 대화, 담론, 사진, 녹음, 녹화, 메모, 시각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사용한다(Flick, 2007; 조영달 201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은 실증적인 조사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현장에서 존재하는 연구 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유도된 이론(Strauss & Corbin, 2008)이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 관리 프로세스

3.2.1. 연구 대상

① 국내 온라인플랫폼 기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을 블렌디드 학습방식으로 운영하는 집단 연구: 국내 F엑셀러레이터사에서 개발한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프로그램을 블렌디드 학습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S대학을 샘플제공자로 지정하였다.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S대학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학부

2) <https://www.openlearning.com/courses/Success>

3) <http://www.educationnews.org/online-schools/open-university-online-learning-must-be-collaborative-social/>

수업과정으로 운영하는 K대학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도 진행하여 S대학의 인터뷰 결과와 비교하였다.

② 무크 전문가 및 참여자 집단 연구: 국내 무크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무크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③ 온라인플랫폼 기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전문가 집단 인터뷰: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 집단을 인터뷰하였다.

3.2.2. 자료 수집

질적 연구의 이론적 관점은 “사실fact은 결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단지 어떤 관점perspective에 바탕을 둔 사실”이라는 점이다. 연구 대상의 관찰 및 구성 범주화,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서 구성 범주의 포함지점 발견하기, 그리고 구성 범주를 더욱 일반적인 분석 모형으로 개발하는 것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조영달, 2015). 따라서 자료 수집 단계와 자료 분석 단계는 선후 관계로서 확실하게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연구 과정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된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최신문헌 검토 및 참여관찰, 심층면담, 이해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3 자료 분석 및 타당성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은 자료를 선별 및 재생하고 구분하며 조직화하는 일을 포함하여 연구 대상(사람 또는 사물, 일, 현상 등)이 자신들의 상호작용을 틀 지우는 방식까지 연구자가 인식하고 분석하는 일이다(조영달, 2015)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인터뷰 전체자료를 전사 작업하였고, 결과는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삼각 측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이라고 불리는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질적 연구의 신뢰도(credibility)를 높이고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J.Maison, 1996). 인터뷰를 진행할 연구 대상층을 삼각 측정방법으로 다각화하여 편견을 배제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코딩하여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4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혁신적 교육 혁명의 흐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정보통신기술기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획기적인 온라인교육 플랫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앙트러프러너십 교

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3판, 33-36
 김도현·김도형·박계현·이수용·임은진·정동관·정수성·최민혜·최운수·황병호(2017). 앙트러프러너십은 경영학과 다른 학문인가?. *벤처창업연구*, 12(3), 1-36
 김형률(2016). 해외 무크(MOOC)활용방법과 Digital Humanities.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21-340.
 설병문·박상혁·박중복·김상표(2014). 근거이론에 따른 창업교육 인식에 관한 고찰. *벤처창업연구*, 9(3), 23-32.
 이우진·황보운(2015).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 *벤처창업연구*, 10(3), 171-183.
 이영달(2015). 국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발전방안 및 교육 전문가 양성 방안. 2015년 창업교육 Best practice forum 자료집, 24-37
 조영달(2015). *질적연구방법론 [이론편]*, 드림피그, 203-238.
 조너선·헤이버(2016). 대학의 미래를 뒤바꿀 학습 혁명 MOOC (김형률, 역), 돌베개출판사. (원서출판 2014).
 하규수·여경은(2016).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221-231.
 김지현(2016). 오마이뉴스, 창업교육의 문제점 시리즈 1,2,3. 2016.12.23일자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0808
 Jonan Donaldson, Donaldson, Daniel Bowdoin, Eliane Agra, Meghan Kendle, Mohammed Alshammari 외 3명.(2015). 전세계 온라인 공개강좌의 충격 MOOC (손경아, 김병호, 광노섭 역), 흥릉과학출판사. (원서출판 2014).
 Mushtak Al-Atabia,n, Jennifer DeBoerb(2014). Teaching entrepreneurship using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Technovation* 34, 261-264
 Fiona M. Hollands, Ph.D, Devayani Tirthali, Ed.D(2014). MOOCs: Expectations and Reality Full Report, 25-50
 Federica Cirulli et al(2016). The use of MOOCs to support Personalized Learning: An Application in the Technology Entrepreneurship Field, *Knowledge Management & E-Learning*, (1), 109-123
 Aras Bozkurt, Ela Akgün-Özbek, Olaf Zawacki-Richter (2017). Trends and Patterns i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Review and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on MOOCs (2008-2015),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8(5)
 Jeremy Knox(2016). Posthumanism and the MOOC: Opening the Subject of Digital Education, *Stud Philos Educ*, 35: 305-320